



3월 29일 금산사에서 열린 '내비뒤 콘서트'에서 신나는 노래에 맞춰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해고 노동자들. 함께 노래하고 즐기는 동안 이들의 마음은 분노 녹듯 풀려가고 있었다.



새벽예불과 108배 시간에는 그동안의 고생으로 눈물을 쏟아낸 참가자들이 많았다.



지도법사 일감 스님과 김병수 심어송라이터의 웃음과 잔잔한 감동을 주는 진행이 돋보였다.

“절망과 증오 내려놓고 새 희망을 보았습니다”

조계종 노동위,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 금산사 '내비뒤 콘서트' 현장

“오랜 투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너무 피폐해졌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쳐 힘들고 피로워 잠시나마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몸보따 마음이 좀 쉬고 싶습니다.”

“새 봄이 왔지만 우리들 마음은 아직도 춥기만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가 주최하고 금산사(주지 원행)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공동주관하는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 '내비뒤 콘서트'가 3월 29~3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금산사에서 개최됐다.

템플스테이에는 SJM 지회,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공무원노조, 전북도청 청소노동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주아산지회노조, 홈리스 활동가 등 해고 노동자와 늘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며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앞두고 “연기법에 의하면 이들의 아픔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 개개인의 아픔으로까지 번진다”며 “사회 소외 계층을 돌보는 불교계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사에 도착한 노동자들을 맞이한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은 “첫째 날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둘째 날은 나를 내려놓는 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사찰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바라보다”며 이들을 반겼다.

금산사의 수선화와 벚꽃은 새봄을 맞아 꽃망울을 터트리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했다.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랜 시간동안 노동쟁의 현장에서 복직을 위해 투쟁해온 이들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분노와 증오심으로 굳어있었다. 이들은 꽃들이 펼치는 금산사를 돌아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특히 미륵전 앞에서 문화유산 해설사가 “미륵부처님은 평등세상을 꿈꾸는 미래의 부처님”이라며 “미륵불을 주불로 하는 도량이 바로 금산사”라고 설명하자 무표정

하던 얼굴에 희망의 미소를 띄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모두 불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발원을 담아 범종을 울린 후 대적광전의 저녁 예불에 참석한 이들은 불심으로 하나가 됐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 하던 이들은 이내 절

3월 29~30일, 해고 노동자 40여 명 아픔 나눠

사찰 예불·심원암 명상길 걷기 등 진행

행복한 세상 발원, 상담치유 점목 의견 제시도

정례를 따라하며 절집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화림선원에서 열린 금산사의 대표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내비뒤 콘서트'는 일감 스님의 진행으로 서울의 한 병원의료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어송 라이터 김병수 씨의 노래와 경험담이 진행됐다.

19년의 직장생활 중 18년 동안 노조 활동을 했다는 김병수 씨는 시종일관 희망을

노래하며 일감 스님과 함께 애잔한 음악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때로는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으로 이들의 마음을 열어나갔다. 특히 부부가 함께 참가한 한 노동자는 9년 동안 복직투쟁을 벌이는 동안 집안 살림살이를 도맡아준 부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코믹한 노래를 불러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최근 노사 간의 원만한 해결을 앞두고 있

다는 한 참가자는 아직 노사 간의 벽이 남아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며 함께 투쟁해온 동료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만 앞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함께 노래하고 웃고 손뼉을 치며 즐기는 동안 이들의 굳어진 마음은 어느덧 봄 눈 녹듯 풀려가고 있었다.

마음을 열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낸 참가자들은 오전 3시 도량성 소리와 함께 자

리에서 일어나 새벽예불에 참석해 참선을 하며 자기를 바라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절을 할 때마다 108개의 염주알을 실에 꿰며 흐트러진 자기 자신을 정리도 했다. 넓은 도량을 비질하며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의 찌꺼기도 함께 쓸어냈다.

SJM지회 이승호 범규부장은 “사찰에서 어제 오늘 시간을 보내면서 동지들과 힘들었던 일을 공유하고, 웃으면서 마음의 분노가 사라졌다. 동료의 배신이 제일 힘들었고 울분이 가득했는데 나를 내려놓고 보니 그들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108배를 마친 전북평등지부 노조 김 모 씨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안에서 숨소리, 심장소리가 들려 집중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복직이 되기를 염원하며 절을 했는데 나중에는 모두 그냥 다 내려놓으니 편안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108배를 하는 도중 씩씩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심원암과 연리지까지 새벽 숲길을 걸으며 명상에 잠긴 참가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다.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각자 작성

한 '행복한 세상을 향한 발원문'을 낭독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

그동안 증오와 분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한 참가자는 “전문적인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짐 정리를 하고 있던 다른 참가자는 “또다시 차별과 무시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1박 2일의 짧은 시간동안 누군가로부터 존중되어 지고 배려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노사간의 문제는 억압, 차별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감 스님은 “해고와 실직이라는 상처를 받고 현실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그 아픔을 바라보는 통찰의 과정 속에서 서로 위로하는 계기가 되고 그 아픔을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 희망과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오는 6월과 9월, 11월 4차례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 말에는 노동자 심리치유센터의 문을 연다.

전주 금산사=조동제 전북지사장

2013년 친환경 초의차 선금 할인 행사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초의차

최고의 품질, 순수한 무공해 친환경 초의차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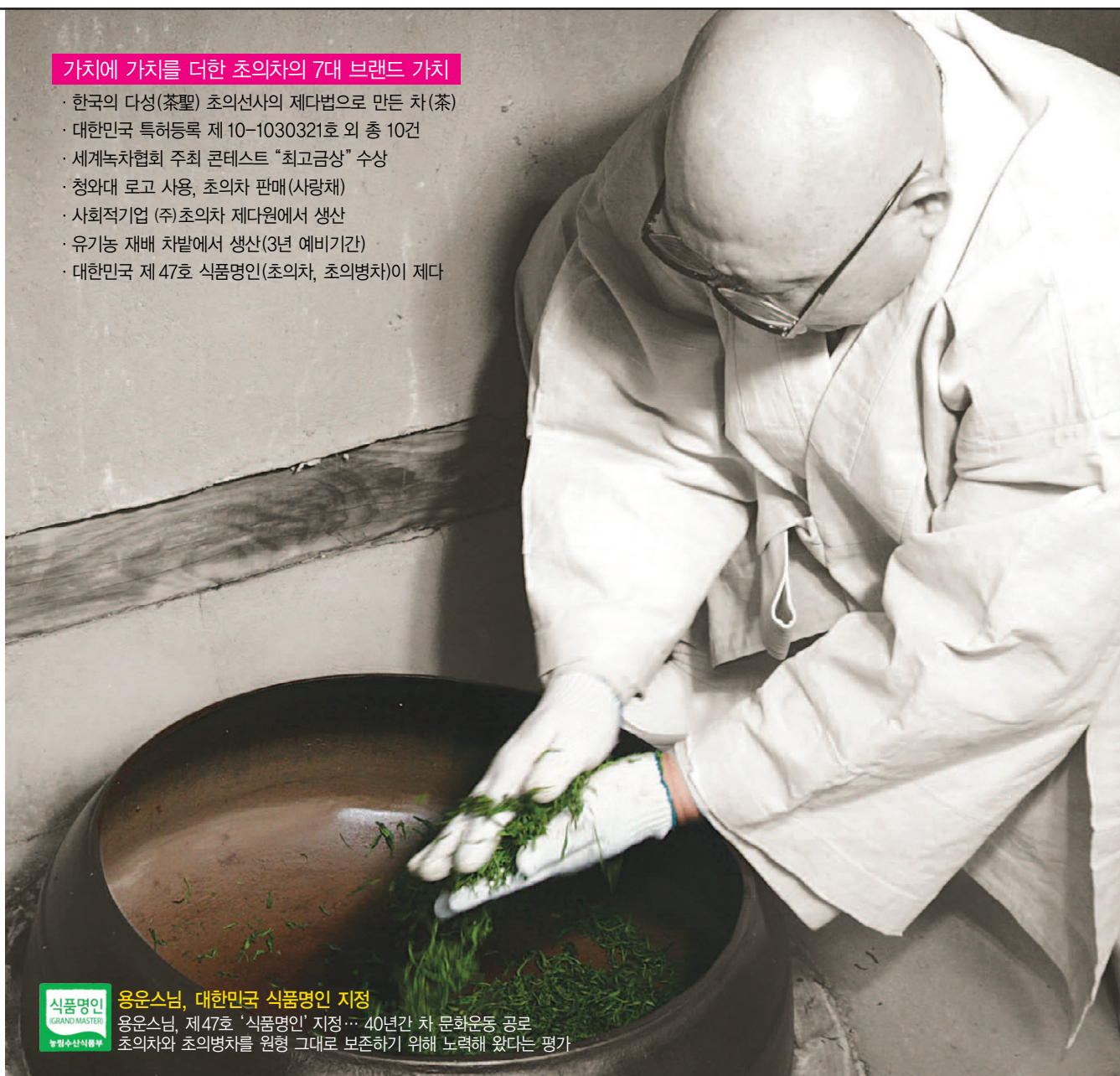
유기농 초의차는 지난 7년간 방치해서 웃자란 차나무를 밀등까지 베어내어 갱신을 한 차나무에서 생산한 차입니다. 방치한 동안 자연 유기농 상태가 되어 그대로 관리하여 최상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량만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시기도 조금 늦지만 9년만에 생산하는 무공해차라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친환경 초의차와 함께 차향 그득히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9년만에 생산하는 첫차라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판매가	할인가	수량(선착순)	선금주문기간	배송기간
첫물차	150,000원	60,000원	300통한정	4월 10일 까지	5월 10일까지
두물차	100,000원	40,000원	500통한정	4월 20일 까지	5월 20일까지
세물차	50,000원	20,000원	800통한정	4월 30일 까지	5월 30일까지

- 주문방식 : 온라인 www.choyeetea.co.kr / ☎ 061)285-0301~2 주문도 가능 ※ 10만원 미만 택배비 3,000원 있습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01-0100-9481-71 / 국민 796201-01-453893 (예금주) 주식회사 초의차



사회적기업 (주)초의차 전남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30



가치에 가치를 더한 초의차의 7대 브랜드 가치

- 한국의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제다법으로 만든 차(茶)
-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 10-1030321호 외 총 10건
- 세계녹차협회 주최 콘테스트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로고 사용, 초의차 판매(사랑채)
- 사회적기업 (주)초의차 제다원에서 생산
- 유기농 재배 차밭에서 생산(3년 예비기간)
- 대한민국 제 47호 식품명인(초의차, 초의명차)이 제다

식품명인 엄운스님,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엄운스님, 제 47호 '식품명인' 지정... 40년간 차 문화운동 공로 초의차와 초의명차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